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추진

전주시, 공모 선정... 연말까지 저음질 전화망 음성인식·한국도시 3차원 영상 데이터 구축

전주시가 음성인식 상담이나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품질 음성·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해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시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국비 38억 원을 확보, 올 연말까지 '저음질 전화망 음성인식 데이터 구축 사업'과 '한국도시 3차원 영상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저음질 전화망 음성인식 데이터 구축 사업은 상담 전화 시 생성되는 저음질 음성 데이터의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홈쇼핑

이나 인터넷 쇼핑물, 보험사, 은행, 음식 배달, 숙박 예약 등에서 소비자의 질문에 대답해주거나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챗봇이나 음성봇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 사업에는 (주)티맥스비아이, 메가스터디교육(주), (주)엑스퍼트컨설팅, (주)인터마인즈, (주)세명소프트, (주)메트릭스 컨설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도시 3차원 영상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한옥마을에서 전주역까지 도시 내에 존재하는 건물과 장소, 도로, 도로부속시설, 기타시설물 등의 객체를 3차원 영상 데이터로 구축해 스마트관광 서비스와 도시 모델링,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기술 개발에 활용

하는 게 목표다.

(주)타임게이트가 주관하는 이 사업 참여기관으로는 신한항업, 광주인공지능센터, 티맥스에이아이, 스마트랩 등이 있다.

시는 최근 경제 성장에 비약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이 구축되면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구축된 학습데이터는 향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허브를 통해 공개돼 인공지능 데이터가 필요한 국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로 전주시가 국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농촌진흥청, 노인 일자리 창출 협력

전주시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한다.

전주시는 농촌진흥청이 다음 달까지 농촌진흥청과 소속 기관 9개 과에서 근로할 33명의 단기일자리를 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달 10일 전주시와 농촌진흥청이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 사회적 가치 실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채용된 노인들은 다음 달까지 ▲농작물 시험 재배 ▲온실 식물 관리 ▲식품 시료 분쇄 및 전처리 ▲작물시료 수확 ▲실업 보조 등의 업무에 투입된다.

시와 농촌진흥청은 다음 달 중순 2차 채용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후 기관별 수요에 따라 매월 채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채용 대상은 지역 내 60세 이상 구직 희망자로, 신청 문의를 전주시 노인취업 지원센터(063-227-0857)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달 협약을 통해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치유농업 기술 개발 및 확산,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사회 기반 구축 등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전국 벤치마킹 잇따라

3~6월 타 도시 청소년문화의집 등 18개 기관 견학 다녀가

전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인 전주시 야호학교에 전국 청소년 관련 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6월 타 도시 청소년문화의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혁신학교 등 총 18개 기관, 277명이 야호학교(교장 장경수) 견학을 다녀갔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야호학교를 찾아 청소년들의 의견이 곳곳에 반영된 공간혁신 시설들을 둘러보고, 야호학교 청소년 프로젝트와 전주형 창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며 큰 관심을 보였다.

야호학교는 완산여고 등 6개 기관, 268명을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야호학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지역 내 홍보는 물론 하반기에 추진할 12개 프로젝트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야호학교 인후공간의 경우 총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365.63㎡(715평),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공연장(두빛나래) ▲밴드실(소리나래) ▲영화관(미리내) ▲전시실(아트마루) ▲작업실(지음) ▲스터디룸(운술) ▲방과후 공간(별두나, 별세이) ▲공부방(수리길) ▲요리공간(해봄요리실) ▲북카페(웨이브카페) ▲휴게실(느루 쉼터, 휴~후 쉼



터) 등이 갖춰졌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치프로젝트 활동이 용이하도록 기획 단계부터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과 시민자문단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꾸며졌다.

전주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과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이자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야호학교는 덕진구 진버들5길 15-1에 위치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582~3)로 문의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 첫마중길' 안심도로 공모전 '대상'

계획 부문 '전주 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 최우수상 선정

전주시가 전주역 앞에 조성한 첫마중길이 정부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로로 인정받았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한국도로협회가 주관한 제2회 안심도로 공모전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안심도로는 지그재그 도로, 소형회전교차로, 차로 폭 좁힘 등 자동차 지속 운행을 유도하는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시설을 적용한 도로를 말한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운영 부문에서 '첫 마중길'로 대상에, 계획 부문에서 '전주 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으로 최우수상에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과 도로협회장상(200만원)을 받는다.

'첫 마중길'은 차로 중심의 대로를 보행자 중심의 생태도로로 변경한 길이다. 시는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앙 보행광장, 워터 미러분수, 여행자 도서관을 설치하고 다양한 첫마중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 역세권 보행친화도로 조성사업'은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아로(옛 한양주유소~동신초교)와 도당산로 일부 0.4km 구간의 직선형 도로를 지그재그 형태로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개구리주차장을 없애고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한 도로설계를



전주시가 전주역 앞에 조성한 첫 마중길이 정부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로로 인정받았다.

했다. 시상식은 도로의 날인 7월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자동차보다는 사람, 콘크리트보다 생태, 직선보다 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을 적용한 도로설계를

인정받게 되었다"면서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고 도로에 대한 생각을 바꾼 첫마중길이 여행자 도서관 등 다양한 콘텐츠와 어울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75세 이상 2차 백신 접종자에 인증 배지 배부

전주시, 7일부터 신분증 지참한 뒤 주소지 동 주민센터서 방문 신청

전주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나 모바일 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오는 7일부터 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종 인증 배지를 배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백신 접종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돼 인증 배지처럼 백신 접종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관심을 얻고 있다.

백신 접종자들은 모바일 앱(COOV)을 통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편리하게 내려 받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에게는



배지를 배부해 남들이 쉽게 백신 접종자임을 식별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배지 배부의 취지다.

2차 접종까지 마친 75세 이상 노인들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접종이력 확인 후 접종 배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접종 배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체

해 사용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전주에서는 지난 1일 기준으로 75세 이상 노인 3만2977명이 2차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률은 97%를 기록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접종배지는 접종 증빙 기능은 없지만 비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해 빠른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3분기에도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증빙하려면 모바일 앱(COOV)이나 정부24를 통해 예방접종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또 동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스티커를 받아 신분증에 부착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